

# 설치미술로 만나는 범어사 대웅전 장엄물

## 불화가 이수예 제6회 개인전 '아름다운 빛깔 단청'



범어사 장엄물을 설치미술로 옮긴 '연화장 세계1' 불화가 이수예 씨의 여섯 번째 개인전 '아름다운 빛깔 단청' 전이 12월 24일~30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한국 선종의 대표사찰, 선찰대본산 금강총림 범어사 대웅전(주지 수불, 보물 제 434호)의 연화장 세계가 서울 도심으로 옮겨온다. 불화가 이수예 씨의 여섯 번째 개인전 '아름다운 빛깔 단청' 전이 12월 24일~30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이수예 작가는 대웅전 내

부를 장엄했던 연꽃, 국화, 당초 등 각종 문양과 상징, 불화 등을 31개 파트로 나누어, 1년여의 작업기간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500여점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조선중기 목조건축 걸작인 범어사 대웅전의 내부 목조 부재, 단청, 벽화, 포벽, 우물천정 등에 표현된 불화와 전통문양들은

살아있는 불국토의 상징이다. 화려한 단청과 아름다운 빛깔 또한 세월의 무게로 가라앉아있는 불교미술의 보물창고다. 이수예 작가는 옛 단청문양을 재현하면서도 독창적 해석과 표현으로 과거 불모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화엄 연화장 세계의 시대적 접근을 모색했다. 이수예 작가는 "법당을 예배하는 이들은

대부분 불전에 얽드려 절하지만 정작 부처님을 장엄하는 주변의 크고 작은 연꽃과 단청의 아름다움을 잘 모른다"며 "내 실력으로 감히 견줄 수 없는 옛 불모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시 파트 중 하나인 '연화장 세계 1'에서는 범어사 대웅전 천장의 국화문, 연화문, 축연화문, 주화문 등을 벽으로 옮겼다. 기본 틀을 만들어 문양을 뜨고 색칠한 단청 문양들을 벽에다 걸고 장식하니 연화장 세계를 상징하는 설치미술이 완성된 것

12월 24일 서울 가나아트서 개막  
단청한 불화, 문양을 설치미술로  
1년 구상 끝에 5백여점 선봬  
연화장 세계1·2 눈여겨 볼만



이수예 작가의 작업 장면.

이다. 고전적인듯 하면서도 세련되고 익숙한듯하면서도 독특한 이 문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 단청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이 작가는 "그동안 불교 미술의 현대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전시 역시 그런 다양한 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불교 미술에는 작가들의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불교미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업이 불교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물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으면 한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이와함께 '연화장 세계 2'에서도 평면화 반자, 당초문 반자, 금문 반자 등을 벽으로 옮겨와 절집 천장의 신비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후원한 이번 전시는 12월 24일 오후 3시 오픈식을 갖는다. 25원 가이금 병창과 피아노 바이올린 2중주 등의 축하공연도 함께 열린다.

한편 불화가 이수예 씨는 (사)사찰문화재 보존연구소장으로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범어사, 미항사, 무위사 등 전국 40여 사찰에서 성보 문화재 조성교 보수 불사에 매진했으며 불교미술대전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현재, 동국대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예원예술대학 등에 출강중이다. (02)736-1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제2회 불교음악상 수상자 선정



덕신 스님

지휘자 이준형



성악가 연정연

작곡가 강주현

불교음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2회 불교음악상' 대상에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덕신 스님이 선정됐다. 2012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는 불교음악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대상에는 오랜 세월 찬불가 작사 및 보급에 앞장서 온 덕신 스님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로상에 이준형(지휘자, 한국불교음악인협회 부회장)·연정연(성악가, 바리올페라단 부단장)씨가, 원력상에는 강주현(작곡가, E&I 앙상블 대표)씨와 추현철(성악가, 지휘자)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트로피 및 상금(대상 500만원, 공로상 300만원, 원력상 1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정혜숙 기자

## 불화로 되새기는 전통의 美

### 단청장 권현규 씨 개인전... 12월 23일~ 31일 충북대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단청장(충북9호) 권현규 씨의 불화전이 12월 23일~ 31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영산회상도, 신중명화, 지장명화 등 30여 점의 전통불화를 선보인다. 단주 권현규 작가는 "불교미술의 쇠퇴 기라 할 수 있는 조선 후기 불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불화만 찾지 조선 후기 불화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이번 작품은 저의 개성을 나타냈다가보다 전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조선불화의 중요성을 되돌아보았다"고 설명한다.



불화가 권현규 씨의 칠성명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중국 투루판의 베제클리크석굴 벽면 등도 재현해 선보인다. 010-5443-7246

정혜숙 기자

## "지친 당신을 위한 작은 위안"

###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12월 25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21회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지친 당신을 위한 작은 위안' 이 12월 25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황학현 해피월드 총예술감독이 기획하고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오민경 씨가 지휘를 하는 공연에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30명이 참여한다.

이번 음악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제 위기에 지친 대중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학현 감독은 "진정, 우리가 목말라하는 것은 크나큰 찬사가 아니라 입가에 서치는 작은 미소, 함께 견주고 내미는 손,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 마디라고 생각한다. 이번 음악회는 아이들의 해맑고 어린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지난해 연주회 장면

속삭임이 어찌면 우리의 지친 삶을 회복하는 가장 큰 위트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공연은 △1부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과 치유' △2부 용기와 변화, 그리고 희망과 변화로 나누어 진행되며 관세음보살, 우리절 연못 등의 찬불가가 공연된다. 특별출연으로는 대한불교중앙합창단, 찬불가그룹 '메타', 국악인 한아름, 창작찬불동요계 대상팀 '일곱 빛깔 중창단' 이 함께한다. 정혜숙 기자

##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전시회

### 12월 1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세 주제로 진행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장 정명)'가 지화문화를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3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꽃 자연으로 물들다'가 12월 12일~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불교지화장엄전승회 공모전 입상 작품 △김태연 박사·이승자 작가 초대전시 △정명 스님의 특별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조계종 성역화 출범식 신중단에 장엄으로 올렸던 평이난 등과 그 외 살모란, 연꽃, 불두화, 동백, 창작 지화, 장미, 함박꽃, 작법 꽃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불교지화장엄전승회는 조계종의 주요 불교무형문화유산 중 하나인, 불교지화장엄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11년 12월 8일 창립했다. 지화 전승자를 양성하고, 보존,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지에 천연염료로 물들인 전통지화를 불교계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이 12월 12일~18일 열린다.

처음으로 복원하였고 전통지화를 바탕으로 한 지화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乙未年 을미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읽히 볼수 있는 래정비법!

4x6배판 / 갈라제본 / 458쪽 / 정가 25,000원  
문고판 (포켓용) / 갈라제본 / 458쪽 / 정가 13,000원

백초율력학당 도서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정가 20,000원 상당의 '한 눈에 쉽게 보는 백초귀장술 원도형'을 무료로 드립니다

##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뵈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뵈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自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연주